

체육거점도시 부상 위한 건립사업 순항

전주시, 총사업비 854억원 투입 전주실내체육관·다목적체육센터·컬링전용경기장 등 건립 추진

전주시가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즐길 여건을 폭넓게 제공하고 전주를 체육거점도시로 키우기 위해 체육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총사업비 854억 원을 투입해 △전주실내체육관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컬링전용경기장 등의 건립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라고 6일 밝혔다.

프로농구 경기장으로 활용될 전주실내체육관의 경우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522억 원이 투입돼 장동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연면적 1만 4947㎡에 지하 1층, 지상 3층, 수용 인원 6000석 규모로 농구와 배구, 배드민턴 등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시설로 조성된다.

시는 지난 2020년 11월 '온(溫)경(景)'이라는 주제의 설계안을 선정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 상태로, 오는 5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내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혁신도시의 대표 생활체육공간이 될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는 중동 852번지 일원에 총 1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39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지어진다. 25m 6레인 수영장과 함께 배구와 농구, 배드민턴 등을 즐길 수 있는 체육관을 비롯해 다목적 체육공간과 야외 테라스 등이 구축된다.

시는 지난해 8월 시작한 공사를 오는 12월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신동 권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거점공간이 될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총사업비 96억 원이 투입돼 서신동 도내기생공원에 연면적 23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들어선다. 25m 5레인의 수영



실내체육관 조감도.

장과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다목적 공간 등으로 채워진다.

지난해 3월 첫 삽을 뜬 시는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오는 8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주화산체육관에는 전라북도 유일의 컬링전용경기장이 생긴다. 컬링 경기장이 없어 훈련을 하러 먼 거리를 다녀야했던 컬링 선수들에게 최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자 건립이 결정됐다. 컬링 경기장은 총사

업비 12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2400㎡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컬링장 5면과 관중석 200석을 갖출게 된다.

시는 이달 안에 설계안 공모를 진행해 작품을 접수한 뒤 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완공은 오는 2023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시는 지역 곳곳에 다양한 체육시설이 조성되면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돕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시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월드컵경기장 일원을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체육거점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추진

원룸 등 다가구주택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 표기

전주시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표기하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원룸과 상가 등 다가구주택의 주소지 기재 미흡으로 인한 우편물 분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사고와 응급환자 발생 등의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시는 다가구주택 현장조사를 벌인 뒤 소유자와 임차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임차인이 점입신고를 한 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할 경우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만큼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협의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건축설계사무소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1598개의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한 바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로 주소 이용시 발생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전주시설공단,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ISO 45001' 인증... 안전사고 예방·안전 문화 조성 목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국제표준이다. 기업은 ISO 45001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공단은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새롭게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준수를 위해 안전보건 체계를 기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제적 수준에 맞춰 재구축하고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공단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을 위

해 기관장 직속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조직 역량을 강화했다. 또 변화된 안전보건 요구에 맞춰 규정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경영위원회 등의 안전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해 왔다.

구대식 이사장은 "이번 국제표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계기로 공단의 핵심 가치인 안전 중심 경영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근로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세요"

내달 3일까지 연간 납부 자동차세 일시 납부하면 9.15% 할인 받을 수 있어

전주시는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다음 달 3일까지 일시에 납부할 경우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 9.15%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신규 연납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도 신청·납부 가능하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

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전북은행)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이 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이 가계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며 "연납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